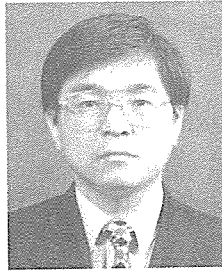


WTO와 세계 유제품시장 동향



백종희

(안성산업대 농경과 교수)

I. 머리말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한 제반규정을 더욱 공고히 한 형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될 당시 세계농산물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WTO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농산물생산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과잉생산을 하였다. 과잉생산으로 국내 농산물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고자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외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수출한 물량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불해 주었다. 즉 농산물세계시장가격은 정상가격이 아닌 덤핑가격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시장에 대해 모든 국가는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결국

WTO 출범 이전까지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온갖 방안을 강구했다. 그 결과 유제품의 세계시장가격도 정상가격이 아닌 덤핑가격으로 가격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낙농 선진국에서 보조금을 지불하여 국제 유제품가격을 낮게 형성시키는 방법 등으로 유제품의 국제시장이 크게 왜곡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고자 각 나라들이 보조금의 지급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기로 합의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기본요지였다.

유럽이나 미국의 낙농가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급이 감축되면 그만큼 소득이 감소된다. 이러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려면 먼저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유제품의 가격 역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각국이 보조금지급규모를 축소하자 생산이 감소했다. 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재고물량이 감축되고 국제시장가격은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시장가격의 상승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부

터 예견되어 있던 바이다. 이제 유제품의 국제시장이 가격이 덩핑가격이 아닌 어느 정도 정상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즉,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생산이 증대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유제품 생산은 축소될 것이다.

II. 주요국의 우유와 유제품수급

세계 각국의 우유는 생산형태가 다양하다. 우유생산은 주로 젖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물소, 양, 염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세계식량기구(FAO)의 추계에 의하면 1994년이 한해동안 약 2억2,600만 마리의 젖소에 의해 약 4억5,900만 톤의 우유가 생산되었다. 젖소 이외의 물소, 양, 염소 등에서 생산된 우유는 약 6,700만톤에 달한다. 젖소우유는 1990년 4억7,800만톤이 생산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91년에 생산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혼란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유럽연합(EU)국가들이 농산물보조금을 감축시키고자 우유생산할당제를 실시함에 따라 생산이 감소했다. 반면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는 1990년 이후 우유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우유생산량은 1994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미 농무성(USDA)은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 증대된 7,14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년도에 비해 4%가 증대된 800만 톤이 생산될 것인데, 이것은 생산할당량의 증대에 기인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995년에 1억2,040만 톤의 생산량을 기대하고 있다. 이중 독일이 전년

도에 비해 2% 증가한 2,870만 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독 이후 수요증대에는 못 미치는 양이다. 프랑스는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2,58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한다. 영국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적은 1,460만 톤이 생산될 것이다.

그런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극심한 한발로 인해 초지의 생육이 부실하여 뉴질랜드는 전년에 비해 2% 감소된 950만 톤, 그리고 호주는 예상보다 적은 1% 증가한 84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소련은 1995년 우유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230만 톤 적은 4,05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젖소의 수가 전년에 비해 130만 마리 감축된 데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집단농장이 최근 기업화되면서 대규모 젖소사육은 더이상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경우 단지 가축농에서의 우유생산은 약간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상품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표 1).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낙농업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의 생산량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은 크게 가격과 품질경쟁력으로 나뉘어진다.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초지를 중심으로한 조사료 위주의 사육으로 인해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의 곡물사료 위주의 낙농업에 비해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우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낙농가가 수취하는 원유가격은 1kg당 119원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가격 271원, 그리고 미국의 230원에 비해 낮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낙농가의 수취가격은 스위스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낙농선진국에 비해 높다(표 2).

1990년 이후 선진국의 유가공품수급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유럽연합국가들과 미국 등이 농산물가격지정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유제품 중

〈표 1〉 세계 주요국의 우유생산량

(단위 : 천톤)

나라 \ 연도	198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f)
영 국	15,797	14,952	14,503	14,428	14,645	14,920	14,600
프 랑 스	26,012	26,400	25,700	25,315	25,049	25,319	25,800
독 일	31,915	31,200	28,916	28,106	28,080	28,050	28,700
네 델 란 드	12,346	11,285	11,407	10,901	10,953	10,873	10,900
유 럽 연 합 계	123,515	127,607	122,961	121,119	120,268	120,383	120,386
스 위 스	3,049	3,843	3,931	3,873	3,862	3,865	3,864
폴 란 드	15,778	15,861	14,504	13,060	12,650	11,920	11,600
러 시 아	102,173	55,715	51,971	47,237	46,524	42,811	40,500
카 나 다	7,925	7,975	7,790	7,633	7,500	7,640	7,950
미 국	65,037	67,005	66,994	68,440	68,303	69,682	71,350
브 라 질	11,600	14,500	14,200	15,000	15,300	15,700	16,100
일 본	7,458	8,190	8,260	8,581	8,627	8,383	8,500
한 국	1,154	1,752	1,741	1,816	1,858	1,917	2,000
중 국	2,860	4,157	4,646	5,031	4,990	5,000	5,100
인 도	19,500	27,500	28,200	29,400	30,600	30,000	31,200
뉴 질 란 드	7,707	7,746	8,122	8,603	8,735	9,719	9,540
호 주	6,177	6,435	6,578	6,918	7,530	8,300	8,427
세계 총계 (FAO)	462,553	477,565	464,468	462,786	460,555	458,645	460,277

자료 : FAO, Production yearbook, 1994

장기저장이 가능한 버터와 탈지분유의 생산과 소비는 감소한 반면에, 치즈와 전지분유의 생산량은 소비증대에 힘입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서구 선진국에서 일인당 버터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비해 치즈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지방 유가공품과 요구르트 등 신선 유가공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버터의 생산량은 1990년 이후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등 유럽연합(EU)의 경우 감소하고 있

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러시아 역시 1990년 이래로 버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은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약 6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호주와 뉴질랜드는 버터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은 한발로 인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표 3).

탈지분유 생산량 역시 버터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낸다. 유럽연합(EU)국가들은 가격지지정책의 축소로 인해서 탈지분유생산량을 1990년 이

〈표 2〉 주요국의 농가 수취가격

연도 나라	해당국의 화폐단위/100kg				원화로 환산/kg
	1990	1991	1992	1993	1993
영국	17.8	17.7	19.5	20.5	249
프랑스	185.4	181.3	184.3	186.3	263
독일	63.2	59.9	60.6	59.1	281
네덜란드	65.7	67.5	68.3	67.5	287
유럽연합평균					271
스위스	103.3	103.7	103.5	100.0	541
캐나다	47.5	48.0	49.0	50.0	319
미국	30.3	27.0	28.9	28.2	230
한국	36,400.0	38,300.0	38,300.0	39,400.0	394
일본	8,910.0	8,950.0	8,890.0	8,720.0	667
뉴질랜드	17.7	24.9	29.2	27.1	119
호주	26.2	28.6	31.0	28.8	157

자료 : ADC, Dairy Compendium 1994

〈표 3〉 주요국의 버터생산량

(단위 : 천톤)

연도 나라	198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f)
영국	220	138	132	127	152	178	185
프랑스	619	514	496	453	444	439	440
독일	892	640	555	474	480	460	475
네덜란드	293	209	196	191	184	159	168
유럽연합계	2,658	2,139	1,958	1,788	1,785	1,745	1,772
폴란드	260	300	220	180	180	145	140
러시아	1,700	833	729	762	716	490	446
캐나다	101	100	97	86	83	89	90
미국	548	591	606	619	596	588	595
일본	88	76	76	95	108	80	70
한국	3	5	4	3	4	3	3
뉴질랜드	258	276	269	268	276	297	284
호주	101	111	111	116	131	147	142

자료 : USDA 관계자료

후 계속 감축시켰다. 폴란드와 러시아 역시 높은 인플레이와 집단농장의 기업화로 인해 유가공공장에서의 탈지분유의 생산은 수지가 맞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탈지분유의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의 탈지분유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내의 소비가 약간 증가하기도 했지만 구호식량과 수출증대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수출은 1990년 1만톤에서 1995년에는 12만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이후 '90년까지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했던 것이다(표 4).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이유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낙농가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을 계속함

에 따라 전지분유와 연유에 비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품목인 탈지분유와 버터를 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들어 버터와 탈지분유는 다시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고량 역시 감소하여 국제시장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국제시장에서 덤핑판매 되었던 버터와 탈지분유의 국제가격이 1995년 초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UR협상결과 유럽연합과 미국이 보조금을 2000년까지 감축함에 따라 더욱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즈의 생산량은 버터와 탈지분유와는 달리 그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계속 증가했다. 치즈소비는 미국과 이탈리아, 일본, 영국에서 크게 증가

〈표 4〉 주요국의 탈지분유 생산량

(단위 : 천톤)

연도 나라	198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f)
영국	268	166	143	101	125	134	135
프랑스	674	580	453	359	346	343	340
독일	737	509	539	395	427	386	390
에이레	155	200	188	131	139	136	122
네덜란드	167	70	52	50	58	38	35
유럽연합계	2,126	1,818	1,588	1,209	1,275	1,207	1,192
폴란드	161	175	145	139	156	113	100
러시아	606	300	338	247	230	205	180
카나다	105	93	77	55	52	58	67
미국	591	399	398	396	433	552	560
일본	184	179	181	206	222	184	190
한국	7	12	10	10	11	8	7
뉴질랜드	160	208	172	162	150	163	165
호주	123	144	156	160	179	221	197

자료 : USDA 관계자료

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다른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치즈 역시 그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치즈와 함께 이를 이용한 식품의 종류가 계속 개발됨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치즈 생산과 소비는 다른 유제품과 달리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표 5>.

III. 주요국의 유제품 교역

1995년 상반기 들어 유제품 국제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이와같은 급격한 국제가격의 상승

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다. 첫째, 오세아니아 국가에서의 한발은 우유생산을 감축시켰으며, 이는 유제품의 수출공급량을 축소시켰다. 둘째, 태평양 연안국가와 남미에서의 유제품수요의 꾸준한 증가는 전통적인 수출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의 수입을 초과하여 미국과 유럽연합(EU)까지 그 수입선을 확대하게 했다. 셋째, 버터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수요증대는 세계시장가격을 상승시켰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출보조금의 지불없이 그대로 버터를 수출하게 되었다. 넷째, 동구와 발틱연안국가들의 유제품생산감소는 국제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축소하게 하였다. 다섯째, 유럽연합(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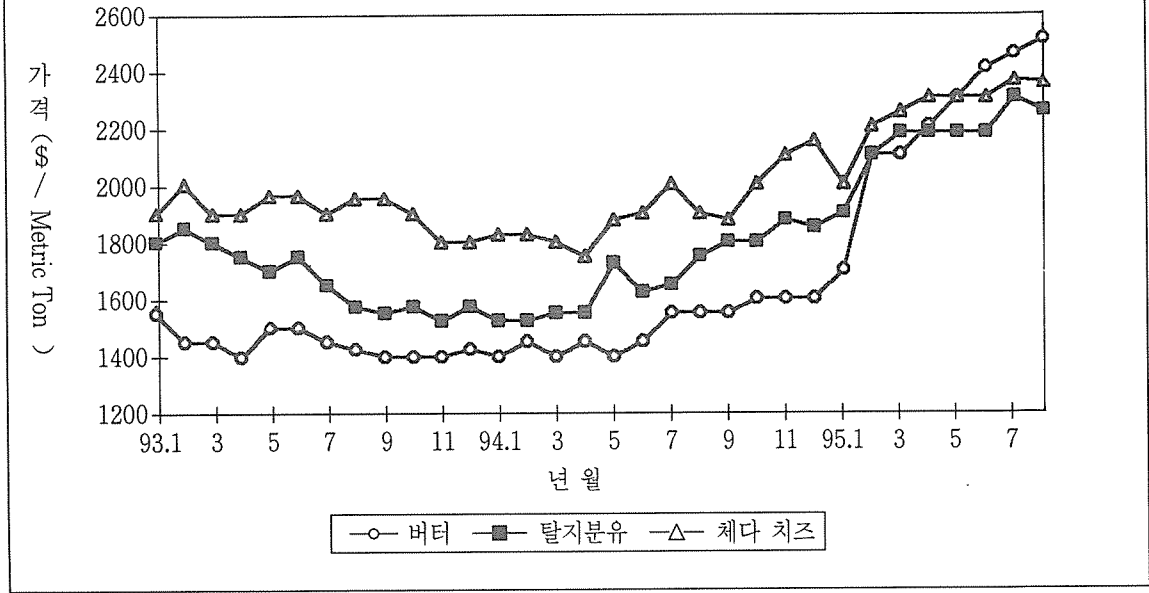
<표 5> 주요국의 치즈 생산량

(단위 : 톤)

연도 나라	198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f)
영국	269	316	303	324	331	326	322
프랑스	1,234	1,471	1,500	1,489	1,509	1,541	1,550
독일	1,158	749	777	783	821	855	870
네덜란드	545	593	610	634	637	649	670
이탈리아	750	811	885	890	885	882	880
유럽연합계	4,783	5,005	5,159	5,252	5,367	5,415	5,469
스위스	129	138	142	141	138	137	137
폴란드	120	126	111	101	113	127	120
러시아	800	458	394	299	304	275	250
캐나다	226	255	262	262	271	281	285
미국	2,370	2,749	2,747	2,943	2,961	3,053	3,160
일본	73	28	27	30	32	33	34
한국	1	7	9	9	12	13	14
뉴질랜드	116	122	125	142	145	192	195
호주	168	175	178	197	211	234	225

자료 : USDA 관계자료

〈그림 1〉 유제품의 국제가격 추이
(1993.1~1995.8)



생산자들이 생산할당제로 인해 초과생산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우유생산을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달러가치의 하락이 유제품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유럽연합(EU)수출가격이 국제시장의 대표가격으로 사용된다면, 달러가치의 하락은 유제품의 국제가격을 계속 강세로 유지시키게 될 것이다. 최근 유럽의 본선인도가격(FOB)은 탈지분유 톤당 2,100~2,200 달러이며, 치즈는 톤당 2,300~2,400 달러이며, 버터는 톤당 2,400~2,500달러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그림 1).

유제품의 국제가격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직접 개입하여 수출보조금 또는 수입쿼터를 설정한 품목과 자유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품목에 따라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정부가 가격정책에 개입할 때는 정부보조금의 크기와 재고량에 의해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즉 정부보조금의 삭감은 버터와 탈지분유의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국

제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 반대로 1990년 초반의 정부보조금의 증가는 버터와 탈지분유의 재고량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제시장에 덤핑판매함에 따라 국제가격이 하락케 된다.

한편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각각 수출보조금을 86~90년을 기준으로 2000년까지 36% 감축키로 했다. 이것은 물량기준으로 약 21%에 해당된다. 기준년도에 수출보조금이 지불되지 않았던 유제품은 향후에도 계속 수출보조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외에 UR협상결과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예외없는 관세화(tariff equivalents)로 수입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수입할당제(quotas)를 실시할 경우는 최저관세로 하여 상품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수입이 없었던 품목은 최소시장접근으로 수요량의 3~5% 선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

다. 이러한 최소시장접근은 유제품의 시장을 확대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들면 미국은 매년 치즈 3,900톤, 버터 6,680톤, 탈지분유 4,680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탈지분유 69,000톤, 버터 10,000톤, 치즈 104,000톤을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시장접근은 일본과 한국 및 아시아국가들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UR협상 결과 세계시장에서 현재 교역이 되고 있는 유제품의 양은 원유환산기준 약 3천만톤으로 전세계 우유생산량의 6%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교역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유제품의 교역량증가는 우유생산량 증가보다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 유제품의 국제가격은 '95년들어 급격히 상승했다. 이러한 유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유제품 교역량은 각국의 낙농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지난 20년동안 각국 낙농정책의 목표는 높은 국내가격의 설정으로 낙농가소득을 지지해 줌과 동시에 자급률을 높이는 데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무역기구(WTO)의 발족으로 이러한 소득지지와 자급률향상을 위한 정책은 일부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낙농선진국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낙농후발국에 비해 많은 정책자금을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낙농가의 소득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미국농업법(Farm Bill)에 의거 우유최저가격(kg당 22센트)을 설정하며, 상품금융회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 CCC)를 통하여 버터, 치즈, 탈지분유를 구매한다. 이외에도 생산조정을 위한 지불제도로 우유 1kg당 2센트를 지불하며, 자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가격은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에 의한 수입할당제에 의거 지지된다. 한편 치즈와 카제인을 제외한 모든 유

제품의 수입은 제한된다. 치즈 역시 11만톤 이상은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미국은 1994년에는 약 9억달러 어치의 유제품을 수입했으며, 수출은 약 7억2천만 달러어치를 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치즈와 카제인이었다. 치즈는 수입할당품목으로 약 10만5천톤(금액으로는 3억1천만 달러)을 수입했으며, 추가로 수입할당 이외에 약 4만7천톤(금액으로는 1억8천만 달러)을 수입했다. 카제인은 약 7만6천톤(금액으로는 3억4천만 달러)을 수입했다.

유럽연합(EU)역시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생산할당제(Quotas)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제품의 수출을 위해 수문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국가들간의 환율차로 인한 가격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환율제도(Green Exchange Rate)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문가격제도에 의거 유제품을 수출할 때는 낮은 국제가격과 높은 국내가격과의 차이 만큼은 수출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재원은 수입관세와 각국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에서 지불한 수출보조금은 국제가격에 대비해 버터는 약 180%, 탈지분유는 55%, 전지분유는 100%를 지급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 역시 보조금지불을 UR협상결과로 감축시켜야 한다. 유럽연합의 유제품 수출입규모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다. 전세계에서 교역되는 유제품수출량의 46%를, 수입량은 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버터와 탈지분유, 치즈의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 이들 재고량을 국제시장에 덤핑판매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수출량을 1994년 버터 18만톤, 탈지분유 21만톤, 치즈 56만톤에 달하며 수입량은 버터 8만톤, 탈지분유 4만톤, 치즈 13만톤으로 수출량의 규모가 수입량에 비해 많다.

세계 유제품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다음으로 큰 위치를 차지하는 수출국으로는 호주와 뉴

질랜드가 있다. 그리고 수입국으로는 러시아, 일본, 알제리아와 남미국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나라의 교역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유생산량이 자국의 소비량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연합과는 달리 수출을 목적으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생산량의 43%, 뉴질랜드는 약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량의 증대로 1994년 뉴질랜드는 우유생산에 있어서 최고기록인 972만톤, 호주는 830만톤을 생산하여 종래의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다. 1995년은 한발로 전년에 비해 생산이 1~2% 감소했다. 그러나 UR협상결과 국제경쟁력 우위에 놓여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우유생산과 교역량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1994년 유제품수출량은 버터 약 9만4천톤, 치즈 9만3천톤, 탈지분유 17만6천톤 이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버터 26만8천톤, 치즈 13만8천톤, 탈지분유 15만1천톤 이었으며, 1995년의 수출량은 이보다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세계의 유제품 수입국으로는 유럽연합과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 소련은 체제의 변화이후 우유생산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유제품 수입량이 대폭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제품 수입량이 1990년 이후 1994년까지는 국내 인플레이와 국제시장가격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1995년에는 약간 증가했다. 러시아의 1994년 버터수입량은 15만톤이며, 탈지분유의 수입량은 7만6천톤이었다.

일본은 치즈소비량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수입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1990년 치즈수입량이 10만톤에서 1995년에는 15만톤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탈지분유 역시 1994년에는 8만6천톤을 수입했는데, 1994년 이상기후 즉 여름의 무더위로 생산량이 격감되어 1995년에는

수입량이 11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UR협상 이후 특히 치즈시장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수출국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들어 95년 상반기(1~6월)중 치즈 수입물량은 94년 동기간에 비해 약 6배가 증가된 6천톤 규모에 이르렀다. 95년에 수입될 치즈 양은 1만2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6).

IV. 맺는말

세계 각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쌀을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으려 한 것과 같이 유제품시장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 감축과 시장개방을 적게하는 방향, 다시 말해서 자국의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단지 그동안 지불하고 있던 수출보조금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2000년까지 36%를 감축하는 것과 최소시장접근의 수입물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귀결이 나게 되었다. 이것은 1993년의 시장개방도, 즉 전체소비량중 수입량의 비중이 미국의 경우 버터 0.4%, 탈지분유 0.4%, 치즈 4.7% 이고, 유럽연합은 버터 3.9%, 탈지분유 1.5%, 치즈 2.5%인 것을 감안하면 WTO 출범이후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제품의 양은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우유자급률은 1994년 92%이었는데, WTO가 발족한 1995년의 경우 87%로 낮아졌다. 그리고 2004년에는 73%를 목표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나 미국에 비해 시장개방도가 매우 큰 것이다.

선진국의 낙농가, 유가공업체, 학계 그리고 정부는 자국의 낙농업과 유가공업의 발전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낙농업과 유가공업의 생산성향상과 새로운 신제품개발 및 수요창출 그리고 물류유통비용의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수집과 홍보, 그리고 국

〈표 6〉 주요국의 유제품 수출입

(단위 : 천톤)

구분 나라	수출						수입					
	버터		탈지분유		치즈		버터		탈지분유		치즈	
	'94	'95(f)	'94	'95(f)	'94	'95(f)	'94	'95(f)	'94	'95(f)	'94	'95(f)
영국	13	16	14	13	25	28	66	73	0	0	19	21
프랑스	19	20	18	20	104	105	1	1	4	5	12	10
독일	9	25	33	45	88	80	2	2	11	10	21	20
네덜란드	63	46	21	25	104	105	5	4	5	2	8	5
유럽연합계	180	202	212	261	558	553	78	83	43	40	131	129
폴란드	8	5	85	70	17	17	3	10	0	0	7	10
러시아	0	0	21	15	1	0	151	180	16	15	76	75
미국	94	55	121	175	25	30	1	2	1	1	151	150
멕시코	0	0	0	0	0	0	18	12	200	180	35	20
알제리	0	0	0	0	0	0	0	0	128	135	0	0
일본	0	0	0	0	0	0	2	2	86	110	143	150
한국	0	0	0	0	0	0	1	1	10	11	3	12
뉴질랜드	268	275	151	165	138	170	0	0	0	0	1	1
호주	94	96	165	187	93	125	2	2	1	1	27	27

자료 : USDA 관계자료

계무역기구를 이용한 협상전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낙농업과 유가공업계는 WTO가 출범한 1995년 낙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사료가격의 인상에 따른 유대인상요구를 수용하여 1995년 10월 6%의 원유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제경쟁력중 가격경쟁력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또한 1995년 11월 소위 '고름우유' 논쟁 즉, 국내 유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이전투구가 진행되는 동안, 외국 유업체는 자국 유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나라 무역전시관(KOEX)에서 자국유제품을 홍보하는 사업

에 모든 힘을 쏟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아이러니칼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WTO의 출범으로 국제시장의 환경변화는 우리나라 낙농업과 유가공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 낙농가와 유업체는 국제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제 우리는 눈을 안팎으로 돌려야 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낙농가, 유가공업체, 학계 그리고 정부는 세계시장의 변화와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정책개발을 위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